
중국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

2015년 5월 14일, 영국 <Financial Times> Gabriel Wildau 쓰촨 광안에서 보도

[편집자의 말] 농촌 과잉 노동력의 고갈에 따라 중국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 '인구 보너스'가 '인구 적자'로 바뀌면서 중국 경제구조에 심원한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30년 넘게 지속된 '중국의 기적'이 속도를 낮추게 될 것이고; 기존 경제구조의 각종 불균형이 바로 잡히고 재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T 중문판은 오늘부터 <'중국의 기적'은 종결되었는가?>를 주제로 한 특집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환점' 시대와 중국이 직면한 도전 및 기회를 논하고자 한다.

191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고향 광안(廣安)을 떠나 유학 길에 오를 때만 해도 광안(廣安)은 쓰촨성(四川省) 내의 극도로 빈곤한 농업 지역사회에 불과했고 지난 200여년 동안 이 지역의 생활수준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때부터 60년이 지난 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개혁개방은 농촌 노동력을 대규모로 방출하여 중국을 공업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광안(廣安)의 노동자들도 이 과정에서 도시로 진출하는 조류에 참여했다.

20세기 80년대 중국 농촌의 인민공사(人民公社) 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다.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산 성과 중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남겨주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생산 적극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하지만 산간 지역에 위치한 광안(廣安)의 경우 기계화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개혁의 혜택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77세인 선샤오진(沈孝珍) 노인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을 개시한 후의 생활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가 척박했다. 경작지에서 하루종일 애써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때 당시 소량의 화학비료를 위해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도시에서 하루 노동으로 버는 소득이 광안(廣安)에서 한주일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많았다. 도시에서 취업한 자들이 번 돈은 이 곳의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영국 <Financial Times>가 2010년 중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구 비례를 볼 때 광안(廣安)이 중국의 '농민공 기적'(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대규모 진출하면서 경제의 고속 성

장이 30 년동안 지속된 것을 뜻함.)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안(廣安)의 470 만 세대 주민 중 약 1/3 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도시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다. 노동력이 무궁무진할 것만 같았던 광안(廣安) 마저도 노동력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과잉 노동력의 고갈---경제학자들은 이 중요한 마일 스톤을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라 부른다.---은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공장에 취직하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사실상 이 현상은 이미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는 낙후 제조업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거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난 수십년간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의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홍콩 지사의 하지밍(哈繼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과 자원이 갈수록 결핍해지고 비싸질 것이다. 공업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재균형을 되찾게 될 것이다. 투자 또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업과 제조업을 통해 바라본 전망이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지난 10 년간 중국 경제에 나타난 여러가지 특징--- 급속 성장, 불평등성의 지속적인 심화,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 막대한 무역흑자---은 대부분 농촌으로부터 공장 및 건설공사 현장으로 대거 이동한 농민공 조류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4 년 6 개월 이상 외출 노동한 인구 수가 2.78 억명이다. 만일 이 인구 수를 한 국가의 인구 수로 가정한다면 이 국가는 세계에서 인구가 네번째로 많은 국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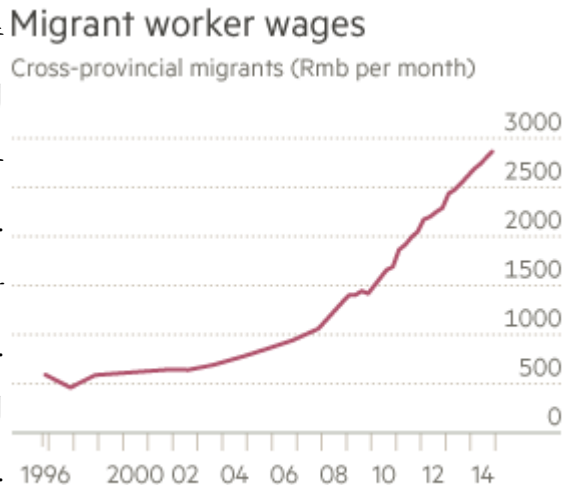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Population and Labour Economics) 차이팡(蔡昉) 소장은 2016 년~2020 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1995 년~2000 년의 9.8%에서 6.1%로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노동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성장을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1954 년 경제학자 아서 루이스(Arthur Lewis)는 전환점 이론을 제시하여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룬 농촌 경제체에서 저렴한 임금 수준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해석했다. 그 이후 이

이론은 일본, 한국과 타이완(臺灣) 등 '아시안 타이거'들의 발전 경로를 해석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루이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 초기에 노동력이 생산성이 저하한 농촌으로부터 도시 산업부문에 이동하면서 급속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성과가 과도하게 기업주에게로 유입된다. 농촌 과잉 노동력의 '깊은 못'으로 인해 저렴한 임금 수준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로 중국 경제의 특징을 해석할 수 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이
다. 노동자 모집의 요이성을 느낀 공장주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담대하게 사업을 확장한다. 지속적인 이윤 증가에 따라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고 순방향 피드백 순환이 형성된다. 저렴한 노동력과 높은 저축율은 무역적자, 거액의 외환비축과 통화가치 상승을 초래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도 있다.

Source: Lu Feng (201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EIC FT

하지만 결국에는 농촌의 임금 수준이 공업부문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점에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도시의 고용주는 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농촌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수출 경쟁력과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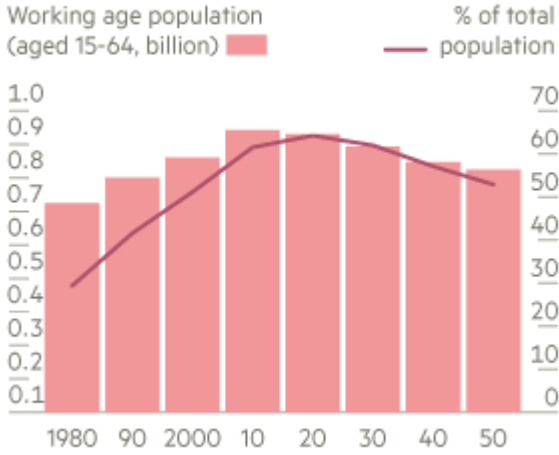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 at Peking University)의 황이핑(黃益平) 이코노미스트는 '2004 년 <부족한 중국의 노동력>이란 제목의 평론 문장을 발표할 때 저를 많은 비웃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중국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광안(廣安)의 농촌에서 노동 적령기에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지에 남은 것은 오로지 어린이와 노인들 뿐이다.

도시화

64 세에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청더취엔(程德全) 선생님은 그가 근무하던 농촌학교(린수이(臨水)현에서 질척한 산길을 따라 두시간 동안 걸어야 도착할 수 있음)에는 학생이 몇명 남지 않았다고 했다.

China's working-age population is set to decline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학교는 아직 그대로 있지만 두개 학년의 10 여명 학생이 전부다. 그들도 앞으로 계속 이 학교를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들이 모두 도시에서 취업했기 때문이다.'고 그는 말했다. 청더취엔(程德全)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인구 수는 과거의 500 명에서 지금은 30 명에 불과하다.

비록 광안(廣安)의 많은 촌민들이 도시로 떠났지만 청더취엔(程德全)에는 인근 '현성(縣城)'(현급 도시)의 한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10 년 전만 해도 몇 동의 정부 건물 뿐이었던 이 현성(縣城)이 지금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행정구역을 따지자면 여전히 농촌 구역에 속하지만 사실상 이미 도시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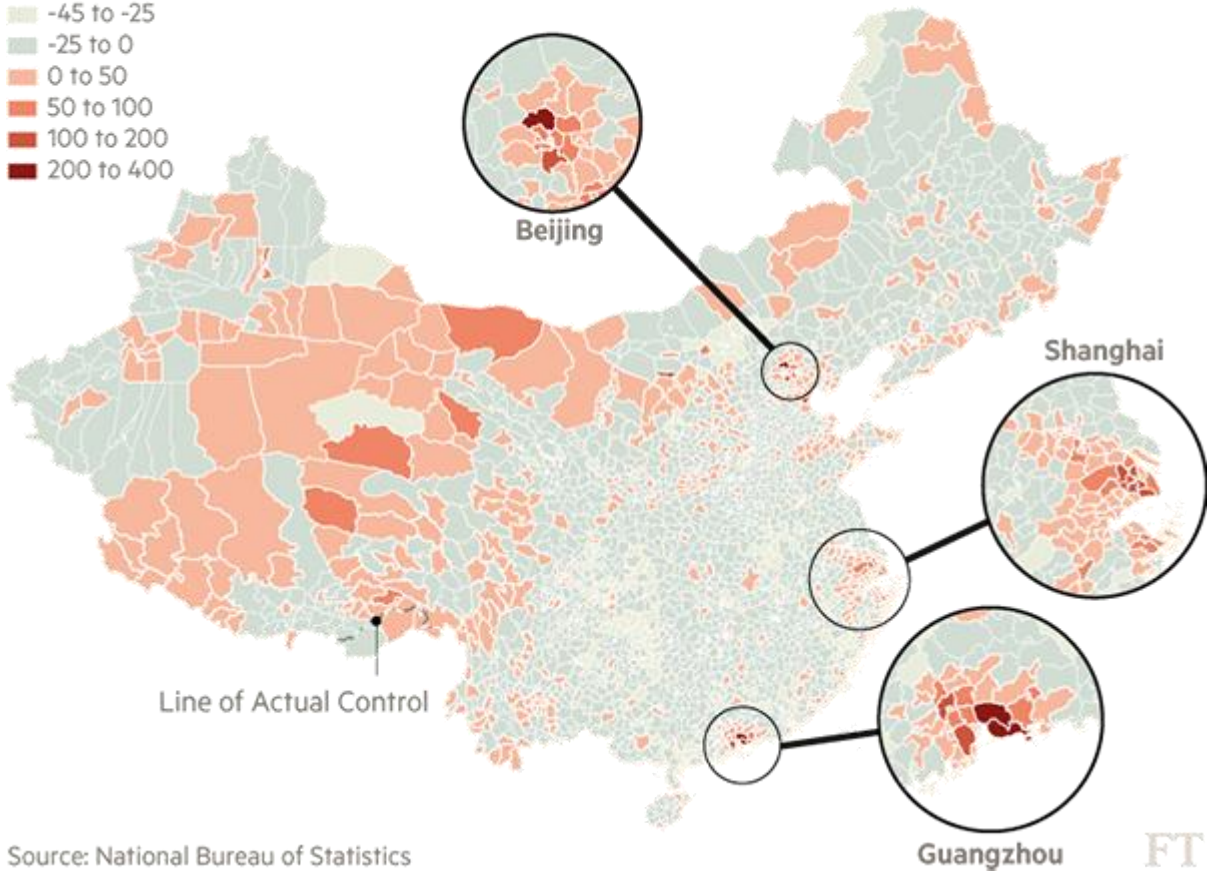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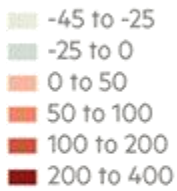
린수이(臨水) 현성(縣城)의 한 노천식당에서 농민의 자제들이 충칭(重慶) 휘궈(火鍋, 샤브샤브)와 맥주를 즐기며 높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간이한 목제 식탁위의 휘궈(火鍋, 샤브샤브) 안에서는 돼지 머리, 소절창 및 오리 콩팥 등이 화끈하게 끓고 있다. 고향은 청더취엔(程德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컸다. 그는 20 세기 70 년대 말 고구마 하나로 마누라, 어린 자식들과 한 끼의 저녁식사를 채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계속 변화하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성(縣城)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4억 중국 인구 중 48%가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 수치는 농촌에 아직 도시 진출이 가능한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별로 진행된 별도의 취업통계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통계 결과의 오차를 정정하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실제 노동인구의 비율이 20%에 불과하다고 중국사회과학원의 차이팡(蔡昉) 소장이 말했다.

Urban attraction

% difference between registered population and census population, 2010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농촌 지역을 방문하면 30 세 이하의 농업 생산 종사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 곳을 떠났다.' 고 차이팡(蔡昉) 소장은 말했다.

광둥(廣東)성 등 수출 중심지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노동력 공급이 가장 충족했던 광안(廣安)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린수이(臨水)현 허류진(河流鎮)의 간쯔용(甘智勇) 진장(鎮長) 등 공직자들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타 도시의 임금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지금 이 곳의 노동력 원가도 아주 높다.' 간쯔용(甘智勇)은 그의 간소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없다. 사무실 안 쪽에는 침실이 하나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결과에 따르면 농촌 출신 노동자의 인당평균월급이 2005 년의 861 위안(139 달러에 상당함)에서 2,864 위안으로 상승했다.

농촌 지역의 임금 수준이 도시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 일부 도시 진출이 가능한 농촌 노동자들은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고향을 떠나 취업하는 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고향에 남아서 자식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간쯔용(甘智勇)은 말했다.

농민공의 감소는 중국 노동력 인구 감소 원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도시화 속도의 둔화와 더불어 중국의 인구 노령화 또한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루이스 전환점 효과를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관건적인 변화이다.

1인 자녀 정책은 1980년~2014년 기인 중국 경제를 위해 일종의 '인구 구조 보너스'를 창출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보너스가 적자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15세~64세 인구 수가 2013년에 이미 최고치를 찍었다고 차이팡(蔡昉) 소장은 지적했다. 어린이·노인과 노동 적령기 인구의 비례---인구 부양비---가 201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1인 자녀 정책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출생률 상승세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87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2,500만명이었고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1997년에는 2,000만명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1,6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년, 3년이 지난 후 노동력 시장의 젊은 노동력이 가파른 하락세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상하이푸단(復旦)대학의 중국인구 전문가 왕펑(王豐)은 분석했다.

재균형

루이스 전환점은 적극적인 면도 있다. 지난 수년간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과도하게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이 국내의 불균형 및 중국과 세계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대규모의 투자는 건설 낭비, 불합리한 자본 배치 및 생산과잉을 초래했다. 텅 빈 도로와 입주자가 없어 '귀신의 성'으로 불리는 주택단지는 중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업부문의 과도한 확장과 제철공장, 조선소 및 솔라배터리 공장의 국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으로 인해 중국과 무역대상국간에 긴장한 관계가 조성되었고 중국의 무역대상국들은 중국이 과잉 생산량을 '덤핑'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루이스의 이론은 노동력 시장의 구조 변화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경제 재균형을 이뤄낼 수 있음을 해석하고 있다.

임금 상승이 이윤과 투자를 점차적으로 침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전환점은 재균형의 발생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이코노미스트이자 황이평(黃益平)과 함께 중국이 직면한 루이스 전환점 문제를 다룬 논문집을 편집한 로스 가너트(Ross Garnaut)는 말했다.

그 어떠한 재균형이든 이로 인해 중국 경제 및 중국과 세계와의 무역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설계 될 것이다. 전환점에 들어선 초기에는 부동산, 기초시설과 굴뚝산업이 경제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서는 의료보건, 대중 매체, 금융서비스 및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활발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수입이 더 이상 원유와 철광석 등 벌크상품에만 집중되지 아니하고 식품과 기타 소비품의 수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다양한 변화는 일련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조건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중국이 계속 행진하여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촌 노동력을 경작지에서 낙후한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아니된다.

'잠재적인 성장을 둔화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차이광(蔡昉) 소장은 지적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단계로의 진입은 경제 성장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전체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대폭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